



"고기나 되었으면 남이나 먹지"

뜻: 하는 짓이 너무 밍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, 차라리 먹을 수 있는 고기였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했을 거라며 홍보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인격 · 무가치 · 비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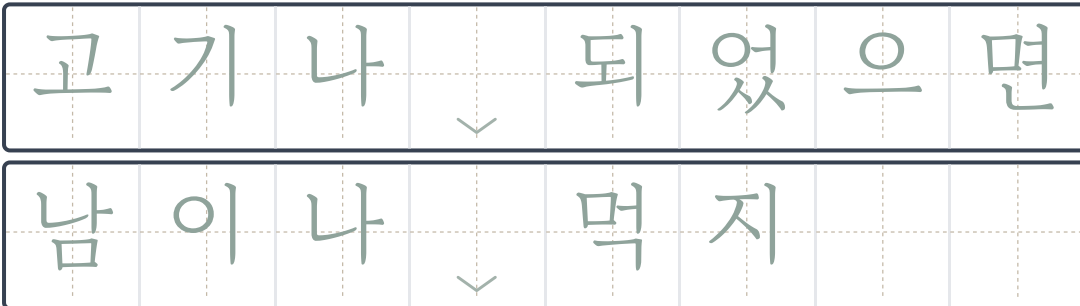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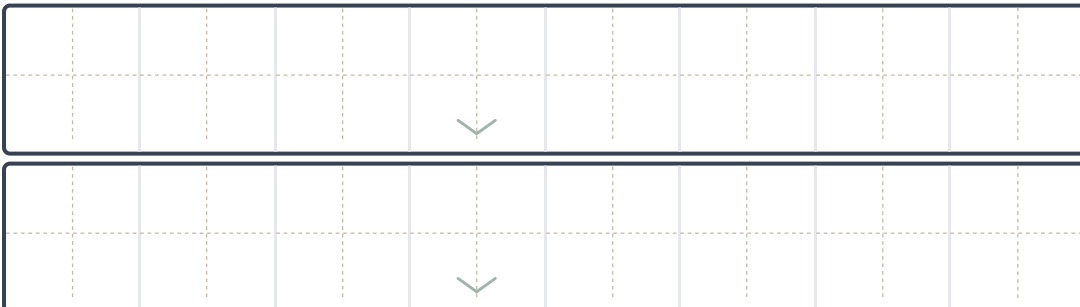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ㄱ ㄱ ㄴ] [ㄷ ㅁ ㅁ ㅁ] [ㄴ ㅁ ㄴ] [ㅁ ㅈ]

웹에서 보기

